

## 2017 년 3 월 5 일 “찾아오신 예수님(22)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요 11:17-27; 38-44)

자신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사람,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 [1]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믿음

마르다와 예수님이 주고 받고 하는 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보면 마르다의 신앙 속에 사각지대로 남겨질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 부각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서’ 새로워진(차원이 바뀐) 현재적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기도의 능력도 믿었고, 당시 일반적으로 믿었던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만 들으면 매우 좋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서로의 신앙 고백의 말은 같은데 다른 내용(컨텐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은 창조주’라는 동일한 말로 고백하지만, 어떤 이는 창조에 대해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창조주라는 내용을 갖고, 어떤 이는 창조한 후에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창조주라고 말합니다(이신론).

이런 측면에서 부활을 말할 때, 본문은 현재의 부활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차원이 ‘지금’ 내게 실존적으로 임하여 삶의 본질과 내용을 새롭게 함을 믿고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에게 일어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39 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까, 그녀는 즉각,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소생을 전혀 기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충실히 진행하십니다.

### [2] “나오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나타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는 수족은 베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싸여서 나옵니다. 상징적으로 이는 아직 자유롭게 풀린 상태는 아닙니다. 목숨은 살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에게 바라시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돌무덤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5:28 참고). 그리고 그는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전의 인생을 한 매듭 짓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여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2:2** 유대 관습상 기대어 비스듬히 눕듯이 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탁 교제의 모습은 매우 친밀한 사귀의 표시로서 그분과의 밀착 교제가 더 깊어졌음을 말해줍니다.

**12:9-11** 그는 꽤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 헌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에 대제사장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사로에게 일어난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죽기 전에는 마르다의 신앙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돌무덤은 영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영적 죽음이란 자기(죄)가 판 무덤입니다. 무질서한 애착, 어두운 모습, 충동적 악습과 증오, 도를 넘는 경쟁욕과 소유욕, 명예욕입니다(송봉모). 나사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삶, 깊은 교제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나오라는 말씀도, 풀려야 한다는 말씀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영적 무덤이 별로 답답하게 느껴지나요? 어둠도 웬만큼 견딜만하고, 나는 남보다는 집착도 덜 하고, 경쟁욕, 소유욕도 그리 나쁜진 않다고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르다 신앙에 머물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들을 수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는 나의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갈만큼 사모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본질은 나의 고백 위에 편안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의 것을 찾으라, aim high!입니다. 이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게인스빌에 있는 우리 교회가 무난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나의 삶 속에서 '나오라'는 말씀과 '풀어 놓아 살라라'와 같은 말씀으로 도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2. 삶에는 변화와 성숙의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나의 신앙과 삶은 화석화됩니다. 이 화석화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3. 나는 지금의 현실의 영적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여기서 도약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가장 삶 답고 행복하고 뜻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은혜 가운데 활력있게 들릴 것입니다.